

독일, UN GCF에 10억 달러 공여

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7 억 5 천만 유로(약 10 억 달러, 한화 약 1 조 원)를 UN 녹색기후기금(GCF)에 공여하기로 약속하면서, 독일은 첫 공여약속을 한 국가가 되었다.

GCF 는 개도국에 기후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이제까지는 기금 설립을 위한 시드머니(seed capital, 초기자금)만 확보한 상태였다. 지난 5 월 기금모금 및 분배 방식에 관한 규칙을 확립한 후 거액의 공여금 수령을 개시한 상황이다. 헬라 쇠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6 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150 억 달러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.

메르켈 총리는 7 월 14 일 베를린에서 자금공여를 발표하면서 “독일을 대표해서, 독일이 우리 책임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”고 했다. 또 다른 나라들도 “적정한 금액”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.

GCF 는 2011 년 12 월 190 개 이상의 UN 기후대사들이 설립한 기금으로, 3 년 6 개월의 준비를 거쳐 본격 운영에 이르렀다. 선진국들의 원조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에 전달하는 주요 채널로 설립되었다.

독일이 공약한 자금은 2014 년 독일의 연방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,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급될 수 있다. 독일은 이미 다수의 국제 기후프로그램에 18 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, GCF 지원자금은 잠정적으로 이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분류되었다고 독일 환경부 대변인이 전했다.

영국의 개발자선단체인 옥스팜 관계자는 e 메일 성명서를 통해 “독일의 발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GCF 의 금고가 비었다는 소리없는 아우성(deafening silence)에 종지부를 찍었다. 이제는 다른 국가들도 독일의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.”고 밝혔다.

출처 = Jul 16, 2014, <http://www.bloomberg.com/news/2014-07-16/germany-pledges-1-billion-to-un-green-climate-fund.html>